

# 마음을 담은 상형토기

이 안내서는 인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어린이가 감상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품을 충분히 관찰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사전·사후 학습 영상 추천  
[국립중앙박물관×EBS]  
똑똑 문화재 박사 '말 탄 사람 토기'편



## 상형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라고 합니다. 경주 금령총에서는 '말 탄 사람 토기', '배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가 한 쌍씩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동물, 물건 모양을 본떠서 흙으로 빚은 그릇을 상형토기(象形土器)라고 합니다.



상형토기는 죽은 이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제의용 그릇으로 실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대체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말과 배는 죽은 사람이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자 죽은 이를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 말 탄 사람 토기

금령총에서 의복과 말갖춤 등을 정교하게 표현한 '말 탄 사람 토기' 두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점 모두 사람이 말을 탄 모습인데 옷차림, 말갖춤이 달라서 각각 주인상, 하인상으로 불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두 토기의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 활동

어린이가 상형토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 '말 탄 사람 토기' 하인상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나요?
- '배 모양 토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색깔 돋보기로 활동지를 관찰하며 상형토기에 담긴 의미를 상상해 보세요!
  - '배 모양 토기'는 물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 신라 사람들은 왜 '등잔 모양 토기'를 만들어서 무덤에 넣었을까요?

	하인상	주인상
모자	상투, 건(巾)	삼각 형태의 관모
옷차림	장식없이 소박한 옷	갓옷, 격자무늬로 표현된 하의
말갖춤	주인상에 비해 단순한 말갖춤	머리장식, 말방울, 말띠드리개 등 화려한 말갖춤
기타	손에 방울을 들고 있음	허리에 칼을 차고 있음
크기	높이 23.4cm	높이 26.8cm

#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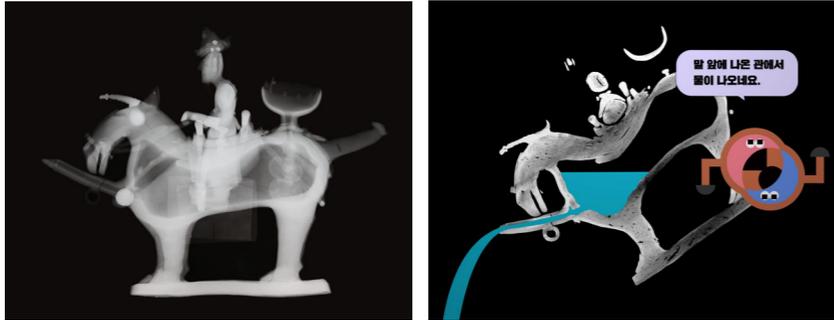
## ① 주전자

### 도움글

'말 탄 사람 토기'는 마치 말 탄 사람을 조각한 장식품처럼 보이지만 엑스선 촬영으로 주전자 기능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물 뒤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에 액체를 넣으면 말 가슴에 있는 대롱으로 따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내부구조를 확인한 결과 '말 탄 사람 토기'에는 240cc정도의 액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X선 사진

CT 사진

- ② '배 모양 토기' - 저승에서 만날 물길을 무사히 건넌다면 하는 마음
- '등잔 모양 토기' -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 ③ 저승/ 천국/ 하늘나라/ 사후세계

### 도움글

배 안쪽에는 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뱃사공이 죽은 이를 태우고 물을 건너서 저승으로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 ④ 편지/ 사진앨범/ 집 모양 토기

\* ②~④번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한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색깔 돋보기로 상형토기를 관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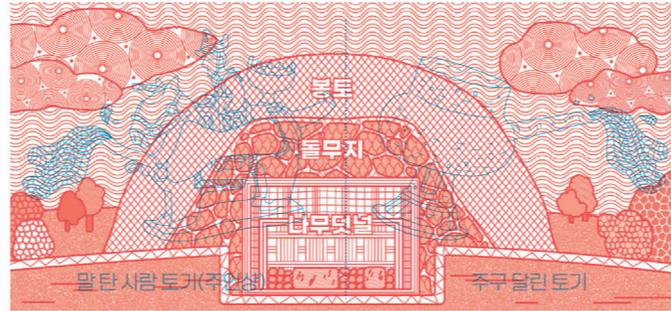
## 상형토기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신라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과 함께 상형토기를 묻었어요. 이 중 속이 비어 있는 상형토기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상형토기 중 '말 탄 사람 토기', '주구 달린 토기'와 비슷하게 쓰이는 오늘날의 물건은 무엇일까요?

①

예: 꽃병, 대접, 주전자, 촛대



②



## 상상해 보세요!

배 모양 토기 두 점은 금령총에서 발견되었어요. 배에는 노를 젓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배 모양 토기  
신라 5~6세기  
높이 14.9cm (왼쪽)

③



## 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

죽음은 가까운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뜻해요. 소중한 사람과 이별할 때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 무엇을 선물하고 싶을까요?

④

## 마음을 담은 상형토기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상형토기에 담았습니다.



'말 탄 사람 토기'와 '배 모양 토기'를 무덤에 넣은 것은 죽은 이가 이동수단을 타고 사후세계에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바란 것으로 여겨집니다.

'등잔 모양 토기'는 죽은 사람이 등잔에 환하게 불을 밝혀 무덤 속에서도 편하게 지내기를 소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